그럼에도 5·18의 역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조 진 태 (재)5·18기념재단 사무처장

5·18기념재단의 나이가 벌써 열 살이다. 많은 변화가 세월의 두께와 함께 있음직한 연륜이다. 잠깐 돌아다 보아도 굵직한 사건들이 얼른 눈에 들어온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학살의 주범들이 심판대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묘지는 국립묘지가 되었다. 두 분의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뜻을 기렸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또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떨칠 수는 없다.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 행방불명의 이름은 누구라 말할 것 없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미국이 어느 정도나 깊게 관여했는가에 대한 진실도 굴곡진 우리 현대사와 더불어 현재진행형으로 묵직하게 자리해 있다. 발포책임자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른 만큼,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고 희망을 심는 기념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

5·18기념재단의 일과 역할

5·18항쟁이 합법화되면서 5·18기념재단은 제도권 영역에서 공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행로를 바꾸고 다른 삶을 살아버리게 한 만큼이나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회변화운동은 5·18이라는 고유명사가 감당해야할 몫이기도 하다. 5·18기념재단의 사업 성격과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늠 할 전제가 되는 것들이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자라나는 세대(청소년)가 기억하고 꿈꾸게 하는 일에 많은 힘을 집중해 온 것은 5·18기념재단이 제도권 영역에서 차지한 지위로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하고 학교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일은 무엇

보다 우선적인 일이었다. 현장교사들이 참여하여 국어와 미술 교재를 개발한 일은 더 확장되어 실제 학교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다. 자원 활동가로 대학생조직을 기획하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5·18항쟁의 내면화를 꾀하는 것도 소중한 일로 자리 잡았다.

고립무원의 80년, 해외동포들의 피와 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동포자녀초청 민주주의 현장답사 프로그램은 동포 2, 3세대에게 조국 또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살아 꿈틀거리는 것으로 느끼게 하였다. 아시아 민주인권단체와 연대하는 일은 그 나라 활동가들의 광주 방문을 비롯하여 5·18기념재단에서 인턴을 파견하는 일로 연대의 폭과 내용을 확장해 왔던 일이다. 재성찰의 기회 제공과 우리사회의 전망 모색을 위해 처음 시도되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18아카데미는 5·18기념재단의 위상으로서 할 수 있는 적합한 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18의 생기와 활력을 위하여

2005년은 5·18항쟁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꺾어지는 해를 중시여기는 우리 민족의 관습으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25주년에 맞게 기념행사의 의제가 설정되고 사회변화의 생산적인 기운을 활짝 펼치는 계기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쓰려는 노력은 낡은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떨치고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읽혀져야 한다. 5·18항쟁의 미완의 과제를 도마에 올려놓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발상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청산과 5·18의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삼아 기념행사를 준비한다면 25주년의 계기적 성격과도 맞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여 기념행사가 준비,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구성할 행사위원회의 몫이 더 커졌음을 자각해야 할 부분이다.

25주년 기념행사의 주제에 맞게 규모 있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5·18항쟁의 상징 공간(특히 망월동 구묘역과 금남로, 도청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행사위원회가 준비하고 구체화해야 할 일이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5·18의 재현은 일반대중과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접근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마당극 등의 기초예술 장르의 작품을 종합 정리하는 일과 함께 새로운 창작작품을 생산해내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5·18의 심화 확장된 담론을 생산하는 일도 25주년에 해봄직한 일이다. 5·18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기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넘어 세계인류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의 여러 위상과 더불어서 5·18 광주의 값어치를 드높이는 일이다. 특히 식민지로서의 경험과 독재 치하의 억압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아시아 나라의 민중과 연대하는 일은 그들에게 5·18 광주가 하나의 희망이 된 것처럼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인턴을 파견하는 일과 함께 그들 나라의 활동가들을 광주로 불러들여 활동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아시아 인권학교)를 개설하고 프로그램(광주국제평화캠프)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일은 5·18기념재단만이 벌일 수 있는 사업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의 성사를 위해서 유관단체와의 연대는 물론, 각계각층 전문가의 지원을 끌어내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자신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활을 밀고 가는 5·18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기대될 일인가.